

영아 사망률 상승 전환 ...“공중보건 위기 반영”



▲ 조산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의 신생아 모습
사진=shutterstock

미국의 영아 사망률이 20년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영아 1천 명 당 5.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영아 1천 명 당 5.44명이 사망한 2021년보다 3% 증가한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다.

인종별로는 흑인이 영아 1천 명 당 10.86명이 사망해 가장 많았고, 미국 원주민도 영아 1천 명 중 9.06이 사망해 사망률이 높았다. 이에 비해 백인은 영아 1천 명 당 4.52명, 아시아계는 영아 1천 명 당 3.5명이 사망했다. 아시아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종들은 모두 지난해 영아 사망률이 증가했다.

1960년대 미국의 영아 사망은 1천 명 당 26명에 달했지만 꾸준히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영아 사망률이 상승 전환한 것은 미국 공중 보건의 위기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CDC에 따르면 영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출산 과정에서의 감염으로 인한 신생아 패혈증이 지목된다. 이와 함께 임산부의 건강 상태도 영아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영아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이 사회 전반으로 퍼진 것도 임산부의 건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뉴욕 공립학교 학생 9명 중 1명은 '노숙가정' 자녀

뉴욕의 공립학교에 등록된 노숙 가정 학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지난해 뉴욕 공립학교의 노숙 가정 학생 수가 11만9천32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뉴욕 전체 공립학교 학생 중 9명 중 1명은 노숙 가정 출신이라는 의미다. 특히 브롱크스 특정 학군의 경우 노숙 가정 학생의 비율이 22%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는 노숙자나 이민신청자 수용소 등 보호시설이나 친척 집 등 임시 거주지를 주소로 둔 학생을 노숙 가정 학생으로 분류했다.



▲ 멕시코 국경을 넘은 망명 신청자들이 뉴욕으로 몰리며 뉴욕의 노숙 가정 학생이 폭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노숙 가정 학생이 늘어난 것은 멕시코 국경에서 넘어오는 망명 신청자들이 대거 뉴욕으로 몰려온 여파로 보인다. 지난 8월 현재 뉴욕시 보호시설에 입소한 이민자와 노숙자 등은 10만 7천900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월(4만5천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제는 이민자들의 유입이 계속되면서 노숙 가정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3만 명의 노숙 가정 학생이 뉴욕 공립학교에 등록했다.

이민자 가정의 학생의 경우 영어가 익숙하지 못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학교를 그만둘 가능성도 높아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항로 바꾸면 총 쏘겠다” 부기장이 가장 위협

비행 중 부기장이 기장을 총기로 위협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미국 교통부 감찰관실에 따르면 유타주 연방법원 대배심은 지난달 18일 항공사 승무원 업무 방해 혐의로 조너선 J. 턴을 기소했다. 항공사 부기장이었던 턴은 지난해 8월 22일 무기를 사용해 기장을 위협하고 승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턴은 당시 한 승객에게 의료 문제가 발생해 항로를 바꿀지 여부를 기장과 논의하던 중 의견이 엇갈리자 기장에게 “방향을 바꾸면 여러 번 총을 맞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교통부 감찰관실은 턴이 교통안전청(TSA)의 ‘연방 비



▲ 이륙 중인 델타항공 항공기. 사진=shutterstock

행 갑판 장교 프로그램’에 따라 총기 휴대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당시 의료 지원이 필요했던 승객의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는지를 비롯해 비행 경로나 비행 시간, 승객 수, 착륙 후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당국이 공개한 자료에는 해당 여객기를 운항한 항공사 이름도 명시되지 않았지만, CNN과 CBS 뉴스,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델타항공이라고 지목했다.

델타항공은 언론사들에 보낸 성명에서 당시 턴이 자사에 고용돼 부기장으로 일하고 있던 것은 맞는다면 “이후 더는 델타항공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업소명(한글): _____

(영문):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